

민요에 나타난 '여성적 말하기' 로써의 죽음

-〈쌈금쌈금쌍가락지〉, 〈누명쓰고 자살한 며느리〉, 〈진주낭군〉, 〈큰어머니 노래〉를 중심으로

길태숙

민요에 나타난 ‘여성적 말하기’ 로써의 죽음

-〈쌩금쌩금쌩가락지〉, 〈누명쓰고 자살한 며느리〉, 〈진주낭군〉, 〈큰어머니 노래〉를 중심으로

길태숙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여성의 삶과 관련하여 〈쌩금쌩금 쌩가락지〉, 〈누명쓰고 자살한 며느리〉, 〈진주낭군〉, 〈큰어머니 노래〉에서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쌩금쌩금 쌩가락지〉, 〈누명쓰고 자살한 며느리〉, 〈진주낭군〉, 〈큰어머니 노래〉에서의 죽음은 비교적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노래의 주체가 되는 여성이 죽는다는 것과 그 죽음이 자살의 형태를 보이며, 노래 안에서 여성의 자기표현의 통로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쌩금쌩금 쌩가락지〉에서는 ‘죽음’을 상상함으로써 정조를 의심하는 오빠의 모함에 항변하고 있다. 〈누명쓰고 자살한 며느리〉에서 며느리는 배타적인 시대식구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모함을 받고 자살한다. 〈진주낭군〉에서의 며느리는 소리없이 묵묵히 시키는 일 하면서 잘 지내는 것 같았으나 남편이 첩과 즐기는 것을 보고 죽는다. 〈큰어머니 노래〉에서의 본처는 첩의 집에 갔다가 첩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과 처지에 눈을 뜨고 상심하여 자살한다.

〈쌩금쌩금 쌩가락지〉에서는 보통 죽음을 상상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지만, 〈누명쓰고 자살한 며느리〉, 〈진주낭군〉, 〈큰어머니 노래〉에서는 등장인물의 죽음이 나타난다. 〈쌩금쌩금 쌩가락지〉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겪은 상황이지만, 〈누명쓰고 자살한 며느리〉, 〈진주낭군〉, 〈큰어머니 노래〉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박탈당한 결혼한 여성이 겪은 현실이다. 곧, 자신을 표

현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어 있고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도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죽음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확인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죽음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자기표현의 한 방법으로, '여성적 말하기' 로써의 죽음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존재 및 현실에 대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그 깨달음의 결과가 개선될 여지가 없는 암담함으로 드러날 때 죽음으로 표현된 것이다.

여성 향유자들은 이들 노래를 부르면서 몇가지 효과를 얻고 있다. 먼저 '여성적 말하기' 로써의 죽음이 현실 인식을 전제한다고 했을 때, 향유자들은 자신의 정체성 및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음 부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남편을 상징함으로써 현실에서의 고통을 대리 치유하는 과정을 스스로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향유자들은 노래의 죽음에 침잠하지 않고 지혜롭고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죽음과 남편의 애도가 자기위안적 상상에 불과한 것임을 깨달은 데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핵심어 : '여성적 말하기' 로써의 죽음, 여성의 자기표현, 자기위안적 상상

1. 머리말

〈쌍금쌍금 쌍가락지〉, 〈누명쓰고 자살한 며느리〉, 〈진주낭군〉, 〈큰어머니 노래〉 등에서의 죽음은 비교적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노래의 주체가 되는 여성이 죽는다는 것과 그 죽음이 자살의 형태를 보이며, 노래 안에서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죽음과 관련된 민요는 많이 있다. 상례의식에서는 그 절차에 따라 민요가 불려지고 있고¹⁾, 특정 의식과 상관없이 죽은 님이나 부모를 그리워하는 노래도 있으며²⁾, 반대로 누군가가 죽기를 바라는 노래³⁾도 있다. 죽은 자를

- 1) 발인제 때 출상에 앞서서, 장지로 향해 가는 과정에서, 장지에서 묘를 만드는 과정에서 〈축원소리〉, 〈상여소리〉, 〈달구질 소리〉 등이 불려지고 있다.
- 2) 예를 들어 〈달거리 노래〉는 열두 달에 맞춰서 죽은 님이나 부모를 그리워하고 있다.
- 3) 〈시집살이 노래〉 중에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첩이나 시댁식구들이 죽었으면 하고 바라는 노래가 있다.

그리워하는 노래나 누군가가 죽기를 바라는 노래와 다르게 등장인물의 죽음이 나타나 있는 노래도 여럿 있는데, 그 가운데 노래의 주체가 되는 여성이 자살하는 노래는 위에 열거한 노래 정도이다.

민요에는 다양한 삶의 모습과 더불어 죽음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인간이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점에서 살고 있다라는 말보다는 어쩌면 죽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른다.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바램이라면 죽음 또한 우리의 몫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민요에 죽음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때문에 민요에 반영된 삶의 모습만큼이나 죽음도 다양한 의미로 해석된다. 죽음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다르며, 노래 안에서의 죽음의 기능 또한 다르다는 것이다. 현실적 차원에서 이해되는 죽음이 있고, 반면 현실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죽음도 있다. 민요가 현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현실의 차원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민요가 어느 짧은 시기에 불려진 노래가 아니라 아주 긴 시간 동안 불려진 노래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아주 긴 시간의 삶과 사유가 녹아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현재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민요에서의 죽음을 놓고 작품 안에서의 의미나 기능에 대해 살펴보는 작업은 의미있는 일이다.

〈쌍금쌍금쌍가락지〉, 〈누명쓰고 자살한 며느리〉, 〈진주낭군〉, 〈큰어머니 노래〉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한 노래들이다. 여성의 자살이라는 비극적 사건은 매우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언어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가부장제 하에서의 여성으로써의 삶과 연관시켜 볼 때, 노래 내에서 사건은 개연성을 갖는다. 그럼 여성의 삶과 관련하여 〈쌍금쌍금쌍가락지〉, 〈누명쓰고 자살한 며느리〉, 〈진주낭군〉, 〈큰어머니 노래〉에서의 죽음이 민요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여성적 말하기로씨의 죽음의 기능

1) 오빠의 모함에 대한 항거

〈쌍금쌍금 쌍가락지〉⁴⁾는 누이의 정절을 의심하는 오빠와 그에 대한 누이의 항변을 다룬 노래다. 아무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도 자신의 말이 인정되지 않자 누이는 자신의 죽음을 상상함으로써 누명을 벗으려 하고 있다.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독질로 딱아내니
먼 데 보니 달일레라	자태 보니 처잘레라
그 처자야 자는 방에	숨소리로 들일레라
말소리도 들일레라	홍덜홍덜 오라바니
거짓 말씀 말아주소	동지선달 서난풍에
문풍지 우난소리	에라 조년 요망한 년
문풍지 소리 모리고	인간 숨소리 모릴소냐
죽고져라 죽고져라	자는 듯이 죽고져라
열두 가지 옷을 입고	아홉 가지 약을 먹고
맹지수건 석 자 수건	목을 매여 죽고져라
내 죽거든 내 죽거든	앞산에도 묻지 말고
뒷산에도 묻지 말고	연당밭에 묻어주소
연당꽃이 피거들랑	날만이게 돌아보고

4) 7-1 515, 7-2 421, 7-3 530, 7-4 258, 7-4 313, 7-4 486, 7-4 87, 7-5 116, 7-8 1053, 7-8 200, 7-11 192, 7-11 882, 7-12 227, 7-12 561, 7-13 842, 8-2 200, 8-5 750, 8-8 223, 8-8 719, 8-11 49, 8-11 531, 8-12 204, 8-12 380, 8-12 396, 8-12 602, 8-12 631, 8-13 610, 강원 146, 경북 173, 경북 409, 경북 694, 경남 394.

7-1 515에서 7-1은 『韓國口碑文學大系』의 권 번호이고, 515은 이 민요가 시작하는 쪽수이다. '강원 146'은 『한국민요대전』(MBC)의 강원편에 실려있는 민요로 146은 쪽수를 가리킨다. 앞으로 계속 『韓國口碑文學大系』와 『한국민요대전』에 실려있는 노래는 책명은 생략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겠다. 죄송하지만 책을 만드시느라 애쓰신 분들의 이름은 뒤에 참고문헌에 올리기로 하겠다.

올 아버지 날 찾거든	약주 한잔 대접하고
우리 엄마 날 찾거든	떡을 갖다 대접하고
우리 오빠 날 찾거든	책칼 한 잘 대접하고
우리 언니 날 찾거든	연지 한 통 대접하고
내 친구야 날 찾거든	연대발에 보내주고
내동상야 날 찾거든	연대꽃을 끊어주소 (경복 694)

이 노래는 쌍가락지를 반질반질하게 닦고 쳐다보는 처자의 모습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뒤로 오빠로 여겨지는 남성이 여성의 정조를 의심하는 소리가 나타난다. 동생은 오빠의 말은 거짓이라고 말을 한다. 하지만 여동생의 항변은 인정되지 않았고, 오빠의 의심하는 소리는 더욱 커진다. 이에 처자는 죽고싶다는 말과 함께 유언과 같은 소리로 자신의 결백을 밝히려 하고 있다. 각편들 간의 큰 차이는 없는 노래로, 보통 '쌍금쌍금 쌍가락지'로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죽고싶다'라는 처자의 말까지에서는 큰 변화를 찾을 수 없고, 처자의 유언과 같은 한탄스런 독백의 말에서 각편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문제는 오빠가 '그 처자야 자는 방에 숨소리로 들일레라 말소리도 들일레라'며 처녀의 행실이 방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시작한다. 그에 대해 처녀는 '오라바니 거짓 말씀 말아주소 동지선달 서난풍에 문풍지 우난소리'라며 오빠의 말이 자신을 모함하는 소리라고 밝힌다. 이쯤에서 변명이 끝나기도 하고, <8-5 750>과 같은 노래는 '늦종지다 불을 써서 지름 닳는 소리로세'라며 오빠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를 더 대기도 한다. 하지만 가부장제의 사회에서 오빠의 말에 대한 처자의 이러한 변명의 말은 인정되지 않았다. 여동생의 어떠한 말도 오빠의 입에서 나온 말의 권위를 뒤집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결국 처자는 자신의 결백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 말이 통하지 않자 최후의 방법으로써 죽음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 한다.

그런데 실제로 죽었다고 노래된 것은 <7-1 515>, <7-4 486>, <8-5 750> 등 그 수가 적고, '죽고져라 죽고져라 자는듯이 죽고져라'에서 볼 수 있듯

이 대부분의 노래에서는 죽음을 상상한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결백이 관철되지 않을 때 '죽을 수 있다면 죽어 보이겠네' 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이 노래에서도 부당한 모함과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신의 결백이 죽음을 상상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조동일은 이 노래를 부당한 간섭을 가하는 오빠에 대한 항거의 노래라고 하였다. 이 노래를 '가. 오빠가 누이를 모함했다. 나. 누이가 모함에 대해 항변했다. 다. 누이가 오빠에 대한 항의로 죽겠다고 했다'의 세 단락으로 나누고, '가'의 원통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의 방법을 썼으나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설명한다.⁵⁾ 오빠에 대한 항거의 방법으로 여동생이 생각한 것은 죽음이다.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 말이 통하지 않게 되자 '죽음'으로써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죽고 싶다는 말에 이어서는 보기로 든 <경북 694>의 노래처럼 유언과 같은 말이 길게 이어지기도 한다. 죽고 싶다는 말 뒤에 이어지는 이러한 말속에는 죽음으로써 자신의 결백을 밝히려는 의도와 함께 이렇게까지 자신의 말이 인정되지 않는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자기연민이 포함되어 있다. 내가 죽거든 보통 사람들처럼 산에 묻지 말고 연밭에 묻어주고 연꽃이 피었을 때 누명써서 억울하게 죽은 나를 기억해 달라든가, 내 말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나를 모함한 오빠를 비롯하여 아버지, 어머니, 언니, 친구, 동생 등을 차례로 부르며 내 말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 탓하기보다는 잘 대접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착한 나를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해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다.

매조키즘적인 이러한 상상 속의 죽음은 여성이 스스로를 표현하는 말하기의 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회에서 스스로를 나타내고 싶을 때 사용되는 최후의 수단으로 죽음이 이용된 것이다. 강진옥은 전통사회에서 여성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적절하게 배양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은 물론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정당한 통로조차 가질 수 없었음을

5) 조동일, 『서사민요연구』(계명대학교 출판부, 1983 중보판), p.85

지적하고 민요에서 여성인물의 자살이나 가출은 자기표현의 통로가 차단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억압이 가해졌을 때 나타나는 돌발적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⁶⁾고 하였다. 결국 죽음은 자기표현의 통로가 차단된 상태에서 선택된 자기표현의 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2) 시대식구들의 모함에 대한 대응

〈누명쓰고 자살한 며느리〉⁷⁾는 시대식구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모함을 받고 결국 자살하는 며느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열아홉이 목은공구
 나하나를 넘어라고
 아니끓은 양초대도
 날끓었다고 여기더라
 절로죽은 겨오새끼도
 날찍였다고 여기더라
 죽을라네 죽을라네
 사악을목고도 죽을라네
 무대덩테 한이불은
 어깨넘에다 걸치덮고
 셋별걸은 요강단은
 밭길밭길이 밀쳐놓고
 길방같은 요내머리
 벼개넘에도 새리놓고
 피었고나 피었고나

6) 강진옥, 「서사민요에 나타나는 여성인물의 현실 대응양상과 그 의미」, 『구비문학과 여성』 한국 구비문학회편, (박이정, 2000). 강진옥은 이 논문에서 여성 민요에서의 여성적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 심도있게 언급하고 있다.

7) 6-3 383, 6-10 112, 6-12 829, 7-5 102, 8-1 135, 8-2 415, 8-11 50, 전복 282.

저승꽃이 피었고나
봉창에라 해돌아도
일어날줄은 제모른다 (8-1 135)

며느리의 죽음은 시댁식구들의 부당한 모함에 바로 이어지고 있다. <누명쓰고 자살한 며느리>에서의 며느리에 대한 시댁식구들의 부당한 모함은 <쌍금쌍금쌍가락지>의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

안먹은 연자절편을 먹었다 나무라고 시누애기가 꺾은 사랑앞의 화초대는 내가 꺾었다고 나무란다 (7-5 102)

시누가 깬 옥동이도 내가 깬 것이고 시누 끊은 목단 꽃도 내가 꺾은 것이라 나무란다 (전북 282)

나무가 그냥 죽은 것인데도 내가 죽인 것이고 (6-10 112)

원래 끊겨있는 베틀대인데도 내가 그런거라 하고 시누가 끊은 양초도 내가 끊은 것이다 (8-2 415)

내가 끊지 않은 양초대도 내가 그런 것이고 절로 죽은 거위새끼도 내탓이다 (8-1 135)

시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일은 며느리 탓이다. 그것이 시집 식구가 한 일이든, 원래 그런 것이든, 자연적인 현상이든 상관없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자초지종을 설명하거나 따질 필요도 없다. 잘못된 일은 모두 남의 식구이자 여성⁸⁾인 며느리가 한 일이기 때문이다. 먹지도 않은 절편이지만 없어도 며느리가 몰래 먹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시누이가 잘못을 저질러도 묻지도 않고 며느리가 저지른 일이고, 더욱 억울한 일은 자연적인 현상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구실 삼아 며느리를 구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8) 같은 남의 식구라 하더라도 사위에 대해서는 보통 이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이러한 모함으로 며느리는 죽을 결심을 하고 결국 자살한다. 며느리에게 쏟아지는 시댁식구들의 부당한 모함은 변명의 말을 해봤자 소용없는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별거 아닌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일상사의 사소한 일 때까지 자신의 존재는 없고, 자기 의지대로 되는 일이 없을 뿐 아니라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존재의 의미는 상실되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열아홉이 목은공구 나하나를 넘어라고' 한 며느리의 녀두리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식구 중에 며느리 혼자만 타자인 상황이었다. 결국 며느리는 변명의 말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목을 매어 자살하거나 약을 먹든가 졸복을 먹고 죽는다.

여인이 자살한 내용 이후 공부하러 나갔던 남편이 돌아와 부인을 죽게 놔둔 어머니를 원망하는 내용이 이어진다. 이 노래에서 남편은 부인에게 우호적인 존재이다. 남편은 부인이 죽었음을 확인하고, 어머니에게 '어머니다 말들으소 / 천금같은 녀의자식 / 만금같은 녀의자식 / 사약을 먹고도 죽었다요' 라며 대들고 짐을 싸서 집을 나와버린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라는 존재가 부인이 죽은 후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남편은 배타적인 시댁 식구들과 부인의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였지만 부인의 절망적 현실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은 주지 못하고, 다만 죽은 부인을 애도하는 기능만 하고 있다. 이는 우호적인 남편의 존재가 현실생활의 반영을 통해 등장하는 인물이라기보다 절망적 현실을 위로받고자 하는 여성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인물이라는 인상을 갖게 한다.

〈쌍금쌍금 쌍가락지〉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겪은 상황이라면 〈누명쓰고 자살한 며느리〉는 결혼한 여성의 현실로 말할 기회는 더욱 박탈당한 상태이다. 〈누명쓰고 자살한 며느리〉에서는 결국 〈쌍금쌍금 쌍가락지〉에서처럼 자신의 결백을 드러내는 방법이 상상으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살로 나타난다. 며느리의 죽음은 많은 식구들 중에 혼자만 타자인 상황, 문제가 생겼을 때 모두 자신의 탓으로 돌려지고, 더욱이 자신은 변호할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타난 행동이다. 며느리의 자살은 완강한 시집식구들의 배타성을 견뎌낼 수 없던 여성의 자기 처지에 대한 절망적 인식에서 나타나게 되는 극단적인 행동¹¹⁾이다. 곧,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었을 때 이러한 극단적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확인시키는 것이다.

3) 남편의 배신으로 깨달은 현실에 대한 자기 표현

〈진주낭군〉¹²⁾은 '울도 담도 없는 집에'로 시작하는 제법 많이 알려진 노래로 〈시집살이 노래〉, 〈첩노래〉, 〈진주남강〉등의 명칭으로도 불리운다. 〈진주낭군〉에서의 며느리의 생활은 별 문제 없는 상태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자살은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시댁 식구와의 불화도 보이지 않고, 울도 담도 없는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가서 불평도 없이 시키는 대로 무던히 일 잘하고, 시어머니 말씀 잘 듣고, 남편을 하늘같이 모시는 그런 생활이었다.

울도 담도 없는 집에	석삼년을 살고나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	야야 며느리아가
진주낭군을 보라거등	진주낭간에 빨래로가라
그것을 듣던 며느리 아가	진주낭간에 빨래로가니
물도 좋고 돌도야 좋은데	오죽초죽 빨래로하니
난데없는 말자죽소리	터벅터벅 나건대라
앞나래기로 거터나보니	하늘같은 서방님이

10) 강진욱, 앞의 논문, p.98

11) 2-9 494, 3-1 481, 4-4 822, 4-6 238, 5-1 34, 5-2 148, 5-2 675, 5-7 233, 5-7 670, 6-8 790, 6-8 756, 6-10 405, 6-11 639, 7-1 510, 7-2 439, 7-4 278, 7-4 347, 7-5 201, 7-5 235, 7-5 375, 7-7 646, 7-8 480, 7-12 562, 7-13 856, 7-14 433, 7-14 814, 7-15 648, 7-16 176, 7-16 217, 7-17 665, 7-17 688, 7-18 221, 8-3 425, 8-3 614, 8-5 724, 8-8 406, 8-8 440, 8-8 696, 8-9 1198, 8-11 301, 8-11 766, 8-13 173, 8-13 429, 8-14 405, 8-14 602, 강원 237, 충북 75, 전북 314, 전남 316, 전남 632.

우산같은 갓을씩고 구	름같은 말을타고
올렁출렁 가는구나	본체만체 가는구나
검동빨래는 꺾기하고	흰빨래는 회기하고
자금자금 담어이고	집이라꼬 돌아오니
시어머니 하시는말씀	야야 며느리아가
진주낭군을 불러거등	사랑방문을 열고나봐래이
그것을들던 며느리아가	사랑방문을 열고나보니
기생첩을 옆에다끼고	오색가지 술을놓고
열두야가지 안주를놓아	권주가로 하는구나
그것을보던 며느리아가	여던방문을 다시나닫고
나이방을 돌아와서	명지야 수건 석자 수건 목을매여
자는아듯이 죽었구나	하늘같은 서방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외죽었노 외죽었노
첩으야정은 석달이고	본처야정은 백년인데

아이고야답답 내팔자야 (8-13 429)

노래의 처음부터 끝까지 며느리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진주남강에 빨래가라는 시어머니의 말씀, 강에서 빨래하는 소리, 꿈에도 그리던 하늘 같은 낭군님이 오시는 말발굽 소리, 낭군이 사랑방에 있다는 시어머니의 말씀, 사랑방에서 낭군님과 기생들이 권주가를 부르며 노는 소리, 마지막으로 죽은 부인을 끼고 '첩의 정은 석달이고 본처 정은 백년인데' 라며 오열하는 남편의 소리만 있을 뿐이다.

소리가 없는 며느리의 모습은 시집에서의 며느리의 위상을 말해준다. 소리를 잃은 며느리의 모습을 통해 <누명쓰고 자살한 며느리>에서처럼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해 보았자 그 말이 말로써 인정되지 않는 상황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존재를 내세울 때는 없어야 하는 존재지만 시집 식구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있어야 하는 존재, 그가 바로 며느리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내세울 때 필요한 소리는 상실하

고 다만 남을 위해 소리없이 묵묵히 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길들여져 있다면,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은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언어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극단적 행동은 어려운 시집살이를 소리없이 참고 견딜 수 있게 버팀목이 돼주었던 남편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과 믿음이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밝혀졌는데, 그 불합리한 삶을 개선해 볼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나타난 행동이다.

〈큰어머니 노래〉¹²⁾는 본처가 첩의 집에 갔다가 첩의 모습을 보고 돌아와 첩과 비교되는 자신의 모습과 처지에 대해 상심하여 자살하는 노래이다. 이 노래에 나타난 큰어머니의 죽음도 언로가 차단되어 있고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도 위협받는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나타난 여성적 말하기로써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노래에 나타난 본처는 〈진주 낭군〉의 처나 〈누명쓰고 자살한 며느리〉에서의 며느리와 비교할 때 매우 씩씩하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 부당함에 항거할만한 당당함을 갖춘 여성이라 짐작된다. 노래도 칼을 갈아 품에 품고 호기있게 첩의 집을 찾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당당함은 첩의 삶에 비해서는 본처의 삶이 낫다라는 우월감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세 그런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현실에 부딪치고 당당했던 모습은 현실의 자신의 모습과 비교되며 자신의 신세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어 버린다. 본처인 자신의 눈에도 아름답게 비치는 첩의 모습과 반듯하고 넉넉하게 꾸러진 첩의 살림살이에 차고 간 칼을 휘두르기는커녕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밥을 먹고 가라는 첩의 말도 뒤로 한 채 황급히

12) 7-8 185, 7-8 1049, 7-16 245, 7-18 614.

〈큰어머니 노래〉라는 제목으로는 대강 두 가지의 다른 노래가 불려지고 있다. 하나는 아내와 자식을 두고서도 후일을 두려고 장가를 가려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저주를 했는데, 아내가 저주한대로 남편이 죽었다는 노래이고, 다른 하나는 본처가 첩의 집에 갔다가 첩의 모습을 보고 돌아와 첩과 비교되는 자신의 모습과 처지에 대해 상심하여 자살하는 노래이다. 여기서는 후자의 노래를 대상으로 한다. 강진옥(앞의 논문)은 이 노래를 〈첩집방문〉이라 명명하였다.

집으로 돌아온다.

〈큰어머니 노래〉의 각편 중에는 본처의 죽음이 나타나지 않고 여기에서 노래가 끝이 나는 각편도 있고, 집에 돌아와서 첩이 죽었다는 부고를 받고 좋아하며 끝이 나는 각편도 있다. 〈진주 낭군〉과 비교해 볼 때 각편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만, 서로 다른 결말을 보여주는 각편이라도 공통적으로 첩집을 방문하고 돌아온 본처는 첩의 삶을 통해 자신의 생활을 돌아봄으로써 스스로의 현실에 눈을 뜨고 있음은 다르지 않다.

각편 〈7-8 185〉에서 본처는 '본처로 사는 것이 첩보다 낫겠지' 라는 자신의 생각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상실한 마음에 그 밤 남편을 기다린다. 집에 돌아와서 기름을 짜 가지고 밤새 불을 밝혀 놓는다. 오늘 그런 소동을 벌였으니 그래도 오늘 밤에는 남편이 나에게 돌아오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다.

깨지름을 짜가주고
 옥등잔에 불을 써서
 천장만장 걸어놓고
 말) 그래

저지름이 끓는소리
 이내간장 끓는소리
 저지름이 맑는소리
 이내간장 맑는 소리
 시뻘뻘기 딱삭해도
 임온다고 문을필떡
 열어보고
 새집승만 필씩해도
 임온다고 문을필떡
 열어보고
 가랑잎만 달달해도

임온다고 문을펼떡
 열어보고
 앉았으니 임이오나
 누웠으니 째이오나
 멍지전대 남전대로
 목을 졸라
 말) 죽었어 고마 (7-8 185)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남편을 기다리지만 남편은 오지 않았고 결국 부인은 자살한다. 새소리, 풀소리, 가랑잎 소리만 나도 남편인가 나가보지만 남편은 오지 않는다. 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부인의 마음은 기름 타들어가는 소리만큼 애가 탄다. 가족과 집안을 위해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어 가면서 헌신적인 삶을 산 것에 대한 보상이 남편의 축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처는 정작 남편에게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묵묵히 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남편의 선처만 바랄 뿐이다. 죽음은 이런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깨달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헛살았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더욱이 이런 삶을 개선해 볼 수 있는 길조차 보이지 않을 때 나타난 행동이 바로 죽음이고, 죽음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다.

3.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여성적 말하기로서의 죽음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 경제적으로 힘없는 위치에 놓인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말할 통로가 차단되었을 때 사용되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런데, 여기서 '여성적 말하기' 라고 한 것은 물론 여성의 성에 초점을 두어 한 말은 아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죽음을 말하기의 한 방법으로 택한 것이 아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이고, 충동적이고, 자

해적이고, 감정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자살을 의사표현의 한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죽음을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만 여성이 사회적 약자인 데에 기인한다.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인 인간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상실했을 때 사용하는 자기 표현의 한 방법으로 죽음이 이용된 것이다. <진주낭군>에서의 며느리도 그러했고, <누명쓰고 자살한 며느리>에서의 며느리, 첩집을 방문한 <큰어머니 노래>에서의 본처도 그랬다. 곧, 여성적 말하기란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 약자인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작업으로써의 말하기라고 할 수 있다.

역사 속에서도 이런 예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비근하게 이준 열사, 전태일 열사의 죽음은 여성적 말하기로써의 죽음과 궤를 같이 한다. 이준 열사, 전태일 열사는 말할 것도 없이 여성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의 죽음이 여성적 말하기로써의 죽음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말할 수 있는 길을 박탈당한 상황 속에서, 더욱이 개선될만한 여지도 보이지 않을 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확인시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성적 말하기'의 밑바탕에는 사회와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 사회 속에서의 내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했을 때는 나란 존재가 없음으로 구태여 타자에게 나를 확인시킬 필요도 없다. 타자로부터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이며, 현실에 대한 깨달음의 결과가 전혀 개선될 여지가 없는 암담함으로 드러날 때 죽음으로 표현된 것이다. 때문에 비극적으로 여겨지는 여성들의 이러한 죽음에 대해 일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¹³⁾

그러면 여성 향유자들이 이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얻게 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먼저 '여성적 말하기'로써의 죽음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13) 김혜순은 진정한 여성 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순간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하고, 정체성의 인식과 관련된 죽음의 체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혜순,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문학동네, 2002))

전제한다고 했을 때, 향유자들은 이들 노래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 및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카타르시스 작용이다. 대부분의 노래의 결말은 카타르시스에 손을 들어준다. <진주낭군>을 부르면서 조강지처의 죽음을 슬퍼하는 남편의 통곡소리를 들으면서 위안을 삼는 것이다. 자기가 죽으면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슬퍼하며 통곡할 남편을 상정함으로써 집안에서의 본인의 귀중함을 찾고 있는 것이다. <진주낭군>의 각편에서는 남편이 아니라 시동생이나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죽음을 슬퍼하기도 하는데, 남편뿐 아니라 시댁식구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통해서 위안의 폭을 넓히고 있다.

<쌍금쌍금 쌍가락지>나 <진주낭군>과 같은 노래를 즐기는 사람들은 양반층 여성이 아니었고, 지식층의 여성도 아니다. 직접 노동에 종사하며, 신분과 지위가 낮고, 많이 배우지 못한 여성들이 대부분이다.¹⁴⁾ 양반층 여성의 경우 남성과는 비교도 할 수 없지만, 가정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효와 열을 중시하는 가부장제 하에서 가정을 중심으로 활동이 제한되고, 남편과 시부모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했지만, 정처가 되면 남편의 정치적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지위를 누렸으며, 국가로부터 여러 혜택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가정내의 어머니로서의 지위는 확고하였으며, 효의 대상이 되었다.¹⁵⁾ 지식층 여성의 경우도 개화기 이후부터 대외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애를 썼으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다.¹⁶⁾ 하지만, 이러한 민요의 주 담당층이라 할 수 있는 향촌의 많은 여성들의 삶은 여전히 여성도 인격이 있는 인간 인가를 의심하게 한다.

다음은 1980년대에 전라북도 정읍의 한 마을에서 조사된 사례이다.

14) 조동일, 앞의 책, pp.53-55

15) 韓嬉淑, 「兩班社會와 女性的 地位」, 『한국사 시민강좌』 15집, (일조각, 1994).

全惠星, 金賢眞 역, 「朝鮮時代 女性的 役割과 業績」, 『한국사 시민강좌』 15집, (일조각, 1994).

16) 이상경, 「여성의 근대적 자기표현의 역사와 의의」, 『민족문화사연구』 9집, (민족문화사연구소, 1996).

1989년 당시 핵가족의 증대 등 인구구조 및 가족 구조상에서 근대화의 영향이 나타나지만 종족촌으로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순수 농업 마을로, 전체적으로 낮은 학력분포를 보이는 곳이었다.

연구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남편이 그녀를 자주 때린 이유에 대해 묻자, 그들은 남편이 부인에게 매질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었던 통상적인 일로써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오히려 질문 자체를 의아해 했다. 단지 그녀 남편의 경우 그녀의 몸을 쓰지 못하게 할 정도로 폭행을 가해 그 정도가 심했다는 데 문제가 있을 뿐이었던 것이다.

남편은 노름에서 돈을 따게 되면 본부인은 물론 첩이 있는 집에도 오지 않고 그 길로 읍내의 기생집에 갔다. 이러한 그의 행위에 대해 마을 여성들은 “오죽 못한 사람이 한 여편네만 바라보고 사는가”라고 하며 첩을 많이 둔 사람일수록 ‘잘난 사람’이라고 하였다.”¹⁷⁾

본부인인 신간난 할머니는 베짜기와 농사짓기를 아주 잘 했으며, 매우 부지런하여 남의 베를 짜주고 바느질 품을 팔아 쌀 열 가마씩 뒷방에 쌓아 놓고 살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은 첩과 함께 살면서 일년에 한 번 만나 부인이 벌여 놓은 돈을 모두 가져갔으며, 빚쟁이가 되어 첩과 함께 집에 들어와 그녀를 뒷방으로 몰아낸 후에도 술만 먹고 오면 그녀에게 매질을 했다고 한다. 부인은 집안 살림과 경제활동을 모두 맡아 하면서도 부인으로서의 권리는커녕 첩과 남편에게 안방을 내어주고 뒷방 신세가 되어 구박받고 살다가 자살해 버렸다. 그럼에도 그녀는 죽으면 죽었지 이혼은 생각하지도 않았다. 이혼은 뒷방신세가 되어 남편에게 매를 맞는 것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신간난 할머니와 같은 비극적 여성의 삶이 보편적인 여성의 삶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구자와 여성들과의 대화를

17) 金眞明, 『굴레 속의 韓國女性 - 향촌사회의 여성 인류학』(집문당, 1993), p.48

통해서 남편의 폭력이나 축첩은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남편의 폭력과 축첩은 결혼한 여성이라면 감내해야 할 일 중의 하나이며, 그러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말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 많은 여성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진주낭군>에서의 부인의 죽음은 남편의 배신과 부당한 횡포에 대한 가슴아픈 항변이며, 남편의 오열은 묘한 희열을 맛보게 한다. <큰어머니 노래>에서도 그렇게 기다려도 오지 않던 남편은 부인의 죽음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달려와 '작은 어마이 잠깐사랑 / 너는 껌은 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살라 캬디이 왜죽었나 왜죽었나¹⁸⁾' 라며 부인의 죽음을 안타까워 한다. <누명쓰고 자살한 며느리>에서도 부인을 죽게까지 만든 자신의 가족을 나무라면서 부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남편의 모습을 그려내는데 노래의 반이상을 소비하고 있다. 부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남편의 모습을 상징함으로써 대리만족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위안적인 상상에 불과하다. 집안에서의 여성의 위치 회복은 개인의 죽음으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존귀함은 남에 의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곧, 죽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흔적은 <진주낭군>의 각편 <충북75>에 나타나 있다. 이 노래는 '부인의 죽음에 이은 남편의 통곡소리'로 끝나지 않는다. 부인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애매한 가운데 남편의 통곡소리에 이어 부인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백년동거 하겠더니
 죽단말이 웬말인가
 여보시오 낭군님아
 기상척하고 잘 살다가
 죽거덜랑 날 찾아와요

어화떨랑 나는가네
 내가가면 어디투가나
 친정부산 찾아가네
 여보시오 낭군남아
 기상참하고 잘 살다가
 죽거들랑 나한테와요

또, 〈진주낭군〉 각편 (8-14 602)에서는 노래를 다 마친 후에 제보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고 있다.

“문을 착 닫고 나감선, 첩아첩아 세차(세째)첩아 네랑나랑 살아보자” 하더라더
 마 뭐 지랄, 죽어른 제 그뿐이라

각편 〈충북75〉에서는 대부분의 각편과 같이 부인의 죽음과 남편의 통곡 소리로 끝을 내지 않고 소리가 없던 부인의 말을 통해 놀라운 반전을 시도하고 있고¹⁹⁾, 각편 (8-14 602)에서는 남편의 애끓는 통곡소리는 여성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위안적 허구이며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이는 나약한 해결방식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난 값진 깨달음이다. 사회적 약자로서 죽음을 선택하여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일은 문제를 양성화시키는 기폭제로써의 역할은 할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인식은 현실 이해를 바탕²⁰⁾으로 한다. 이러한 민

19) 〈진주낭군〉에서 ‘친정부산 찾아가니 죽거들랑 내게 오라’는 이 사설은 〈충북75〉에만 나타나는 사설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부른 진주낭군에서도 볼려지고 있다한다. 이는 이러한 사설의 내용이 한 창자의 창작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노래를 향유하는 여성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20) 최철은 민요가 지닌 사회적 가치로 ‘인식적 기능’과 ‘교양적 기능’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민요를 향유함으로써 민중들이 세계의 객관적 실상을 인식하고 세계를 변화 개조시키며 공동체적 유대를 유지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최철, 『한국민요학』(연세대출판부, 1992), pp.295-300

요를 부르고 듣는 가운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비판²¹⁾하면서, 노래를 향유하는 여성들이 노래의 죽음에 동화되어 스스로의 삶을 비판하거나 자기연민적 애상에 머물지 않고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쌍금쌍금 쌍가락지>, <누명쓰고 자살한 며느리>, <진주낭군>, <큰어머니 노래>에서의 죽음이 '여성적 말하기' 로 기능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여성적 말하기' 로써의 죽음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자기표현의 한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 및 현실에 대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여성적 말하기' 라고 한 것은 여성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죽음이 의사표현의 한 방법으로 선택된 것이 여성이기 때문에 나타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인 인간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상실하고, 그러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기미조차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인 것이다. 다만 노래에서 이러한 극한 행동이 주로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쌍금쌍금 쌍가락지>에서 여동생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죽음을 생각한다. <누명쓰고 자살한 며느리>에서 며느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모두 자신의 탓으로 돌려지고 공동체 내에서 혼자만 타자인 절망적 현실이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죽음으

21) 서영숙은 서사민요의 서술방식에 창자뿐 아니라 청자가 큰 구실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향유자들의 노래에 대한 평가와 해석이 작품의 전승과 창작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서영숙, 「서사민요의 구연상황 연구」, 『어문연구』 29집, (어문연구회, 1997).

로써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시킨다. <진주낭군>, <큰어머니 노래>에서도 여성은 삶의 버팀목이라 여겼던 남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자 불합리한 현실과 절망적인 자신의 삶을 인식하고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죽음을 선택한다.

‘여성적 말하기’ 로써의 죽음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한다고 했을 때, 여성들은 <쌍금쌍금 쌍가락지>, <누명쓰고 자살한 며느리>, <진주낭군>, <큰어머니 노래> 등의 노래를 향유하면서 자신의 정체성 및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카타르시스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진주낭군>과 <큰어머니 노래>에서 조강지처의 죽음을 슬퍼하는 남편의 통곡소리를 들으면서, <누명쓰고 자살한 며느리>에서 부인을 죽게까지 만든 자신의 가족을 나무라면서 부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위안을 삼는 것이다. 부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남편의 모습을 상정함으로써 현실에서 받은 상처를 대리치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향유자들은 이같은 노래의 죽음에 동화되어 상심하거나 자기연민적 애상에 머물러 있지만은 않는다. 현실을 직시하여 지혜롭고 건강한 삶을 영위해 가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다.

■ 필자 : 연세대 강사

참고문헌

- 金善豊, 『한국구비문학대계』 2-9(198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金榮振, 『한국구비문학대계』 3-1(198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朴桂弘, 『한국구비문학대계』 4-4(1983), 4-6(198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崔來沃, 『한국구비문학대계』 5-1(1980), 5-2(198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朴厓告, 『한국구비문학대계』 5-7(198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金承璨, 『한국구비문학대계』 6-3(1984), 8-9(198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崔來沃, 金均泰, 『한국구비문학대계』 6-8(1986), 6-10(1987), 6-11(198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崔德源, 『한국구비문학대계』 6-12(198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趙東一, 『한국구비문학대계』 7-1(198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趙東一, 林在海, 『한국구비문학대계』 7-2(1980), 7-3(1980), 7-7(198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崔正如, 姜恩海, 『한국구비문학대계』 7-4(1980), 7-5(1980), 8-5(198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崔正如, 千惠淑, 『한국구비문학대계』 7-8(1983), 7-13(198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崔正如, 『한국구비문학대계』 7-11(1984), 7-12(1984), 7-14(198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崔正如, 千惠淑, 林甲娘, 『한국구비문학대계』 7-15(1987), 7-16(198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林在海, 『한국구비문학대계』 7-17(1988), 7-18(198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鄭商卦, 柳鍾穆, 『한국구비문학대계』 8-1(1980), 8-2(1980), 8-3(1981), 8-8(1983), 8-11(1984), 8-12(1986), 8-13(198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MBC, 『한국민요대전』, 전 9권, (1992-1996).
- 강진옥, 「서사민요에 나타나는 여성인물의 현실대응양상과 그 의미」, 『구비문학과 여성』, 한국구비문학회, (박이정, 2000).
- 金眞明, 『굴레 속의 韓國女性-향촌사회의 여성 인류학』(집문당, 1993).

- 김혜순,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문학동네, 2002).
- 서영숙, 「서사민요의 구연상황 연구」, 『어문연구』 29집, (어문연구회, 1997).
- 이상경, 「여성의 근대적 자기표현의 역사와 의의」, 『민족문학사연구』 9집, (민족문학사연구소, 1996).
- 全惠星, 金賢眞 역, 「朝鮮時代 女性の 役割과 業績」, 『한국사 시민강좌』 15집, (일조각, 1994).
- 趙東一, 『敍事民謠研究』(啓明大學校出版部, 1983 증보판).
- 최철, 『한국 민요학』(연세대출판부, 1992).
- 韓嬉淑, 「兩班社會와 女性の 地位」, 『한국사 시민강좌』 15집, (일조각, 1994).

Abstract

Death as Women Talking in 〈Ssangkum Ssangkum Sangkaraggi〉, 〈Dishonored Daughter-in-law who killed herself〉, 〈Jinjo Nanggoon〉, and 〈Aunts Song〉

Kihl, Taesuk

This study examined the meaning of death in 〈Ssangkum Ssangkum Sangkaraggi〉, 〈Dishonored Daughter-in-law who killed herself〉, 〈Jinjo Nanggoon〉, and 〈Aunts Song〉 in relation to womens life. The death in 〈Ssangkum Ssangkum Sangkaraggi〉, 〈Dishonored Daughter-in-law who killed herself〉, 〈Jinjo Nanggoon〉, and 〈Aunts Song〉 has common characteristics such as death of the woman who is the subject of the song, suicide as the form of the death, and use of death as a way of expressing women themselves in the song.

〈Ssangkum Ssangkum Sangkaraggi〉, the girl refuted the reproach of her brother who doubted her virginity by imagining her death. The daughter-in-law in 〈Dishonored Daughter-in-law who killed herself〉 committed suicide after ungrounded reproach by her exclusive in-laws. In 〈Jinjo Nanggoon〉, the daughter-in-law seemed to have no problem doing all works without complaints, but killed herself after seeing her husband enjoying with his mistress. The wife in 〈Aunts Song〉 became distressed when she had come to see the reality of her own life through the life of her husbands mistress she was visiting and eventually killed herself.

While the death was only imagined in 〈Ssangkum Ssangkum

Sangkaraggi), the actual deaths of characters appeared in 〈Dishonored Daughter-in-law who killed herself〉, 〈Jinjo Nanggoon〉, and 〈Aunts Song〉. Also, 〈Ssangkum Ssangkum Sangkaraggi〉 represented a situation a single woman was experiencing while 〈Dishonored Daughter-in-law who killed herself〉, 〈Jinjo Nanggoon〉, and 〈Aunts Song〉 showed the reality of married women deprived of opportunities to express themselves as well. In other word, the women recognized and made others recognize their own existence by death in the circumstance that blocked their ways of self-expression and threatened their own value of being. Therefore, the death in these songs is women talking, a way of self-expression of women who are the weak in the society. Based on the realization of their own being and reality, the despair that there is no way to improve the result of their realization was represented as death.

Women enjoyers have several effects by singing these songs. When it is said that the death as women talking presupposes realization of reality, the enjoyers have opportunities to realize their identities and reality. In addition, they go through a process by which their pains in reality are healed alternatively when the husband who mourns the death of his wife was presented. Lastly, the enjoyers looked carrying on a wise and healthy life without being overwhelmed by the death of song and which is believed to be the result of their realizing that the death of women and mourning of husband are no more than self-comforting imagination.

key word : Death as women talking, Dishonored Daughter-in-law who killed herself, self-expression

▶ 위 논문은 2월 15일 투고되어 소정의 심사를 거쳐 5월 1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